

바르셀로나, 아동을 위한 도시 속 놀이공간 확대 계획 발표

http://www.barcelona.cat/infobarcelona/en/tema/Urban%20planning%20and%20infrastructures/more-childrens-play-for-a-city-with-more-life_617122.html

향후 2년 동안 바르셀로나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 내 아동 놀이공간과 레크리에이션 공간 30곳을 새로 설치하고, 39곳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Ada Colau)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린이들 또한 도시의 주요한 시민이며, 아이들에게 도시공간에서 잘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새로운 놀이공간은 아동들의 학습력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공간이면서, 건강하며 더욱 사회적인 공공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Parc de la Pegaso’, ‘Parc Central de Nou Barris’ 두 개 공원을 보다 오픈되고 다목적의 공간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때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에 반영하게 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다섯 개 공간에는 큰 규모의 놀이기구나 동물 모양의 놀이기구, 자연을 활용한 게임 공간 등 독특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학교 운동장이나 등굣길, 수퍼블록(super block), 가로, 공원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할 방침이다. 우선 ‘Escola La Pau’ 주변 지역을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행된다.



바르셀로나의 도심 속 놀이공간 확대 계획

자료: 바르셀로나 시정부 홈페이지(http://www.barcelona.cat/infobarcelona/en/tema/Urban%20planning%20and%20infrastructures/more-childrens-play-for-a-city-with-more-life_617122.html)